

회복기에 있는 중독자 가족상담 과정연구: Ethnography 연구 중심

이 현 경 교수
(Ph.D., 백석대학교)

국문초록

회복기에 있는 중독자들과 가족을 대상으로 통합적 가족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알기위해 양적연구 결점을 보완한 질적연구로서 Ethnography 면접을 활용한 가족상담 과정연구를 시행하였고 수집한 자료를 분류분석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인 중독자와 그들의 가족들은 가족상담의 session내에서는 치료적 동맹, 하나님의 공평함, 상호작용 촉진 가족의 응집력, 기독교적 새로운 관점, 동기부여, 가족강점 발견 등으로 도움이 된 경험의 주제로 상담의 분석 내용이 분류되었으며, session 밖에서는 과제의 유용성, 용서, 상담의 삶의 적용, 계속성, 가족 예외상황 찾기 등의 도움이 된 지각을 주제로 분석내용이 분류되었다.

중심단어 : 회복기 중독자와 가족, 가족상담, 질적 연구, 문화 기술지, 기독교, 가족경험, 상담과정연구.

I. 여는 글

‘중독’이라는 용어는 21C에 적합한 용어는 아니나 약물이나 성, 일, 쇼핑 인정받는 것, 종교 또는 권력, 생활양식, 아드레날린 등에 의존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2006년에 한국을 다녀간 Archibald Hart박사(2005)는 중독은 영적, 생물학적, 생화학적, 심리학, 사회문화적 요소 등 복잡한 상호작용으로 일어나며 이러한 문제를 편견없이 접근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누구나 숨겨진 중독이 있음을 시사한다. 알코올 중독 뿐 아니라 모든 중독은 개인의 질병 보다는 중독자가 속한 가족의 맥락에서 가족에게 미치는 가족병(family disease)으로 인식되기 시작된 것은 오래 전 일이다. 가족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중독은 가족의 평형성과 가족의 항상성에 의해 유지 되고, 가족에게 피해를 주는 중독자에게 정적인 피드백이 다시 되돌려 짐으로써 유지될 수 있다. 많은 연구들은 단주 상태가 되거나 의존적인 증세가 없다 하더라도 가족의 불균형과 불화, 공동의존은 남아있으며 다시 중독 재발의 가능성이 있어 중독자와 가족들에게 자조 Group, 중간집(Halfway house), 지원 Group 등이 권유되어진다. 미네소타 model, 정신과 외래치료, 입원치료, 낮병원, 치료공동체(Therapeutic Community: TC), 시설치료(Residential Treatment)에서 시도해왔던 여러 치료들의 한계성이 증명되면서 기독교 Divine Therapy와 후원자 역할 model¹⁾ 중심으로 하는 교회 지원 Group, 회복 Group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가족상담의 현황으로 21C 선진국의 경우 치료성공인 치료와 상담효과가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경우에 보험회사에서 가족이나 내담자의 상담비가 지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과연구의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성과 연구에서는 상담의 효과성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특정한 내담자에게 ‘기독교 인지주

의 상담'이나 '해결중심 목회상담'이 '폴투르니'와 '클라인벨' 등의 '기독교 인격주의 상담'보다 효과성이 없다 또는 효과가 좋다"든가, "Black box 이론인 '가족체계이론'(first order cybernetics)이 '반영담', '이야기치료', '단기가족 치료' 등 2차 가족치료(second order cybernetics)보다 효과성이 없다 혹은 아니다" 등의 효과를 검증하는 것 등은 '성과연구'이다. 보험회사 직원에게 유용한 효과성 검증을 위주로 한 성과연구의 문제점은 성과연구가 제한적인 정보를 준다는 것이다. 일단 상담이 시작되면 상담을 완전한 독립변수로 볼 수 없다. Ryder(1988)의 언급대로 모든 형태의 치료가 일관성이 있어 반복하여 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 상담의 과정은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하거나 정형외과에서 뼈를 맞추거나 피아노 조율사가 조율을 하는 것과는 다르다. 상담가-하나님-가족의 치료적 삼각관계에서 순환적으로 주고받는 역동과 synergy와 힘을 보유하게 된다. 상담에서 상담가가 자신의 거룩한 심리상담 model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과 효과를 위한 성과연구에만 치중을 한다면 상담 model과 테크닉과 상담방법의 중요성만을 강조하게 된다. 그러한 '거룩한 상담 model'에 의해 성과 연구만을 기대한다는 것은 보험 회사 직원들에게 유익하지만 상담자들에게는 무의미한 것이 된다. 최근의 가족상담의 공통적 요소는 상담 기법보다 내담자에게 적용되는 상담의 공통적 요인들이 유용성으로 밝혀지기 시작하면서 과정연구는 활성화 되기 시작했다. 상담과정연구에서 "가족상담이 어떻게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었고, 상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안에서 어떻게 변화 되었고 어떤 요인이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는 중요한 Issue이다. 그리고 상담의 과정연구와 성과를 연결시킨다면 더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중독의 이해와 유형, 가족상담 issue를 다루고 문화기술지 내용 분석을 통하여 가족상담과정 분석과정의 연구결과를 서술하였다. 가족상담의

과정연구는 논문의 지칭된 page 관계로 변화과정에 관련되는 가족에게 일어난 경험과 행동에 대해서만 ‘상담 session 동안’과 ‘상담 session 후’ 두 영역을 통해 다루어 보도록 한다

II. 펴는 글

1. 중독이해와 유형

개인상담에서 다루어 왔던 중독자들의 “수치심”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립감’, ‘버림 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존재가 결함이 있다’는 왜곡된 감정등의 “비성서적 수치심”을 의미한다. 자신이 실수를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기대하는 것 보다는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심층적 왜곡은 자신의 노력이나 변화를 부정적으로 간주하며 다른 사람에게 용납되는 용서가 자신에게는 불가능하다는 이중적인 믿음체계를 갖게 한다.²⁾ 중독에 대한 전문 서적들에 의하면 ‘수치심’은 중독자의 증상과도 관련되어 있지만 수치심은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는 동반의존(i.e. 관계중독, People Addict, 사람중독, 종속의존성, 상호의존 중독, People Pleasure, 인정중독, 시인중독)이라는 문제도 가져오게 한다. “수치심” 문제는 원가족으로부터 오며 어린 시절에 겪어왔던 수동적 학대 (i.e. 유기)이든 능동적 학대를 겪었던 사람일수록 가족이나 인간관계에서 정서적 고통 혹은 사회적으로 거절을 받을 때 마다 더 많은 같은 어려움을 겪는다. 수치심의 뿌리는 세대적 전달로서 인간의 심층적인 감각(deep sense)에서 자신의 마음 속 깊이 존재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중독을 언급하는

많은 서적들이 어렸을 때 ‘학대’와 ‘외상’과 ‘수치감’을 중독의 원인으로 마무리 짓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거나 흑백논리로 설명한다면 문제가 있다. 미국의 공인 임상심리학자이며 Dr. Larry Crabb의 상담학을 이어받은 성경적 상담학자 Tom Edgington 교수³⁾는 중독의 진행은 처음에 더 좋고 많은 것을 추구하기 위한 자연적인 욕구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하였다. 그는 상담자 역할 중 하나는 욕구(Longing)와 목표(Goal)를 구별해 주는 것을 중요하다고 하였고 신학 안에는 심리학이 있음을 언급한다. 중독자는 자신의 중독의 행동들을 멈추는 것에 대해 의식적으로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알지 못하는 깊은 곳, 무의식 세계의 또 다른 자아의 왜곡으로 인해 중독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은 사도바울의 언급 등에서 표현되고 있다(롬 7:15; 마 26-41; 시 51:6; 시 139). 그러나 은밀한 곳에 하나님이 지혜를 공급해주신다는 성경적 message는 중독자에게 의미가 있다. 성중독 연구가 한계가 있는 한국은 그 통계적 보고가 어려우나 미국의 성중독자의 70% 이상이 자살을 시도한다고 보고된다. 중독자들의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중독행위가 멈추지 않기 때문에 주기 중 실패단계에서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중독의 cycle에서 의식과 몰입단계에 이르기 전 공상단계에서 도움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다. 바울은 ‘어릴 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언급을 하면서 인지구조에 대한 설명을 한다. 여러 종류의 폭행을 당한 어린 자녀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장성한 사람과 인지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원인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아이의 선택은 무의식적이던 의식적이던 상처가 되며 결국 그들이 강담하기 어렵게 되어 슬픔과 두려움을 차단해 버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Sandra Wilson 박사(2005)는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고 믿고 있는 ‘비성서적 수치심’은 술을 마시는 않는 가족의 자녀들 중 약 5%, 알코올 의존가족 자녀들의 50%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비 알코홀릭 가족의 자녀 10%, 알코홀 가족의 자녀의 약 60%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의존감의 문제를 가진다고 하였다.⁴⁾ 성중독 전문가인 미국의 Mark Laaser 박사는 그의 조사를 통해 외상을 ‘충격적인 심한 상처’ 문제가 되어진 중독자들의 7%는 성적 학대를, 75%는 신체적인 학대, 97%가 정서적인 학대를 받고 또한 60% 이상이 세가지 학대에 노출 되었다고 보고한다. 그의 통계조사에 의하면 Internet 포르노와 성적 행위에 발각이 되어 복음주의 교회에서 42% 이상의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추방되었는데, 성중독자의 80%는 아동학대를 받아왔다. 미국의 Beverly & Tom Rogers 부부 의 연구와 같이 Laaser 박사는 300-400명 이상의 가족을 통해서 자신들의 배우자가 원가족과 흡사하고 닮았다는 통계 수치에 대해 외상을 준 부모와 배우자 선택과의 상관성을 언급한다. 성중독자들의 배우자들도 81%의 성적학대의 희생자이며 97%의 정서적 학대를 받아왔고 75%는 신체적 학대 피해자로 3가지 학대에 동시에 노출됨을 지적하였다⁵⁾. 중독을 방지하고 치료하기 위한 수단으로 목회자가 되는 경우, 목회를 하다가 다시 중독 문제로 70,000dollar를 internet 포르노와 잡지 등을 위해 소비해왔거나 300만불을 창녀와의 생활에 소비하여 교회의 파문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보고하였다. 미국의 목사님들 가운데 80% 이상이 감정적인 고통을 대처하기 위한 일 중독자로서 생활을 하거나 성 중독 때문에 체포되어 이혼으로 끝나는 부부들이 있는가 하면 남아프리카 남부에서 그들의 삼분의 일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것도 최근의 현상들이다.

한국에서 성폭력의 50% 이상, 모든 실인사건의 55%, 자살의 25%, 정신병 환자의 50%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는 알코홀 중독은 350만명, 그 이상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던 대한주류공업협회(1999-2000)의 한 역학조사에서는 한국 성인의 4명-5명중의 한 사람이

알콜중독 증세에 대한 보고를 하고 있다. 한국 중독자 가족들의 실태 및 특성의 선행자료와 대구 가톨릭 알코올 상담센터의 보고는 내담자가 금주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부부갈등이 심각하며 사회지지도 자녀의 비정상적 순응 태도, 혹은 반사회적인 행동의 심각성을 보고한다. 125명의 미국의 회복기 중독자 집단과 127명의 한국인 중독자 집단을 비교한 이현경의 연구⁶⁾에서 미국 가족 집단은 가족치료, 교회지원 group, 중간 집, 치료공동체 등을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으나 가족지각(family perception)의 재구조화가 요구되는 한국 가족집단은 부인, 방어적 태도, 동반의존, 비기독교 Ideology, 무지와 닫힌 가족체계로서 한국 가족개입의 어려움을 보고했다.

중독의 유형은 물질중독, 과정중독, 행동중독으로 분류된다. John Bradshaw (1994, 2002)는 종교 중독에 대해 행위로서는 투자로서의 헌금, 자기집착, 극단적 편협한 신학, 종교적 엑스타시, 과도한 종교활동 등이 포함 된다고 하였다. ‘Creating Love’(1994)이라는 저서에서 원가족으로부터의 외상과 종교적 중독성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자기 집착은 상처 주는 신앙 형태, 종교적 중독으로 발전하기도 하며 타인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지 못하며 자기방식에 머무르며 고립된다. 종교중독의 특징은 타인의 부정적인 면을 발견하며 정죄의 흑백논리와 이분법적인 사고에 의해서 종교나 신학적 가치관을 강요한다. 결혼과 가족의 문제를 노력보다 하나님이 즉시 마술처럼 해결해 주길 원하며, 인간관계에서 즉각적으로 멈추게 하는 마약과 같은 것을 갈구하게 된다. 거식증, 성중독 음식중독 등이 잘 회복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일상적인 반복되는 인간의 욕구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성 중독자가 성중독 cycle을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보며 공상, 의식단계, 몰입, 절망단계의 각 단계에서 기독교적인 인지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성중독의 “부적절한 touch”는 수치감을 설명하는 “내적인 고통”과 연관되어 있으며 원가족으로

부터 놓아주지 못하는 잘못된 기대, 사랑의 갈망과 절대적 갈망⁷⁾을 성적 touch로 동일시하는 것이다. 성중독에서 특이한 현상 하나는 결혼관계 외의 성적인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배우자와의 성적인 관계가 친밀감의 표현에서가 아니라 친밀감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행위로서 알려져 도막완구행동(Building Block Behavior: 공상, 외설물, 포르노그래피, 자위행위, 매춘), 변태 성욕(i.e. 물품 의존증, 노출증, 관음증, 마찰도착증, 사이버 섹스, 수간 등)과 성적공격(i.e. 강간, 근친상간, 아동성희롱, 부부강간) 등으로 구분된다. DSM IV에는 성중독이란 용어가 없으나 증세와 행위가 DSM IV의 진단에서 발견될 때 의료보험이 제공된다. 권력중독과 성중독은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힘을 느끼게 하고 상대방을 이기며 지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것에 대한 내성을 갖게 된다. 성서의 여러 구절에서 발견되는 알코올 중독 증세들은(i.e. 잠 23:29-35) 초기의 사회통제적인 관점에서 중독자의 상황에 따라 다각적인 면에서 접근하는 통합적인 방법으로 변화 되어가며 가족상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2. 중독을 설명하는 이론들

Brain Model 중 의료 모델(Medical Model)은 대중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모델이 강조될 때 중독자는 중독행위와 책임을 회피하게 되고 중독적 행동을 합리화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 과장중독과 행동중독이라 하더라도 신경전달 물질들은 항상 연루되어 있고 도파민이 분출이 상대세포로 전달이 된다. 뇌의 한가운데 벤츠럴에서 생성되어 분비가 되는 도파민은 뉴클리어스 컴버스와 전두엽 부분에도 분비되

고 쾌감을 느끼게 하며 인간은 그들의 중독적인 행위나 물질에 중독되는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며 몸에 생기는 ‘도파민’에 중독되는 것이며 도파민에 의해 생기는 쾌락에 의해서 내성이 생긴다. 중독에 대한 뇌 연구가 계속되어 지는 가운데 어린아이가 기쁨을 느끼며 창조하면서 기억하는 “Joy Center”에 대한 연구⁸⁾가 있다. 그러한 system은 생후 3개월 동안 그리고 12개월 안에 뇌에서 개발되어지며 세 살 때 고정화 되고 생후 8개월에서 3년까지 중요한 부위로 자리잡는다. 자녀와 엄마와의 결속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Joy center에서 발생하는 기쁨은 쾌락이 아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딛고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자원이며(골 1:11; 엡 9:22; 살전 1:16; 시 126:5; 렘 31:13, etc) 어떠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건디는 힘 (resilience)⁹⁾ 을 갖게 해준다. Joy center는 하나님 양육 질서에 의한 가족의 결속을 설명하며 그것이 망가질 경우, 주위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인간은 기쁨과 욕구를 스스로 외부에서 찾고 몰입하는 쾌락에 노출됨으로서 중독과정이 설명되어 진다.

중독을 구순기(oral stage)에의 고착이라고 보았던 Freud의 이론과 다르게 Solomon은 잠재적 동성애와 관련이 되었다고 보았다. 도덕적 model은 중독을 죄 문제로 동일시하는 반면 A.A의 신념은 중독을 죄와 질병 model로 간주한다.

애착이론(Attachment theory)은 불안정한 애착관계(회피/저항애착, 붕괴 혼란애착)은 유아의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인 만 2세 만 3세의 문제들, 부모의 양육적 미해결 과제와 이동의 대뇌피질의 손상의 문제, 평상시 정보처리 능력의 결손 가능성과 함께 양육자와의 혼란된 애착관계가 중독에 기여하는 것으로 언급한다. Menninger는 자기 파괴적 욕구의 산물로 중독을 설명하는 반면, 대상관계이론 중 Kohut의 이론은 중독 이전에 자기애적 성격문제의 임상적인 명사들을 방어적이며 보상적인 구조들로 보았다. 어린 시절의 자기대상의 심각한 공감적 반응의 실패는 어린아이에게 자기애적 외상(narcissistic

trauma)을 갖게 되면서 유아기의 아이는 과대자기와 이상화된 부모상을 자기 속으로 통합하지 못한 채 자기에적 평정을 유지하려는 정신발달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상화된 자기대상 발달의 원초적인 단계에서 겪게 되는 외상적 실망 때문에 어린아이는 자기를 달래주고 어머니와의 경험들을 집진적으로 내면화 하지 못함으로써 원초적 대상에 고착된 대로 남아있게 되며 그 달랠과 진정효과를 약물에서 얻는다고 하였다. 대상관계 이론은 방어적이며 보상적인 구조 밑에 낮은 자존감 우울증 무가치함 거절에 대해 확신을 갈망하는 마음에 의해서 약물에 계속적인 접근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신분석 이론은 증독을 환원적인 굴레로서 설명한다. 그들은 중심역동(Central Dynamics)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인간정신 안에서 어떤 것이라도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없고 정신적 현상이나 심리적 경험의 원인이 있다는¹⁰⁾ 직선론적 인과관계로 해석하고 있다.

3. 증독과 가족상담 Issues

가족치료 전문가들은 1960-70년 정신치료 학회 연구들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놓기 시작했다. 연구들은 “유아기 혹은 아동기에 학대받은 내담자에게 잠재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상처로 인해서 반드시 문제가 더 발현될 것이다”는 환원주의의 관점으로 인간을 정형화 하는 것으로 ‘흑백논리’라고 지적하였다. 2005년 한국을 방문했던 M. Bowen의 제자 McGoldrick과 Walsh¹¹⁾는 아동들에 대해 10년 간 횡단적인 연구와 종단적인 연구를 해온 Any Warner(1980-1990)로부터 연구를 이어받았다. McGoldrick은 19C의 전형적이며(old fashioned) 종단적, 횡단적 연구 없이 결정론적인 해석은 인간을 고정화나 고착화 시키고 창조에 위배된다고 하였다. 문화적 소산, 가족의 맥락,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진단의 카테고리를 하나로 묶는 것이라고 한 McGoldrick 박사의 이론을 뒷받침하는 상담은 California 주립대학 Gerald Corey 교수의 많은 저서에서도 보여진다. Corey 박사는 미국에서 21C 보편적인 상담자를 ‘McGoldrick’ 교수로 언급하면서 상담에서의 중다 문화적 issue와 민감하고 조심히 다루어야 하는 상담자의 윤리¹²⁾의 중요성을 언급한다. 상담자의 반사감정을 ‘내담자의 저항’이라고 해석하며 내담자에게 원인을 돌리는 위험한 작업은 전문가의 실수로 간주된다. 미국의 21C 최근 일반상담 이론의 동향은 과거 상담과 다르게 극단적 임상 목회상담자들(Facts not Faith View)에게 기독교 상담 정체성을 지적해 주는데 유용성이 있다. 누구에게나 베푸시는 하나님의 보편적 은혜 때문에 일반상담에도 진리를 발견한 부분이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는 Edgington 교수의 지적은 J. E. Adams(CCM., 92-93)의 언급과 같이 그들의 발견한 진리가 성경적이라면 새롭게 주목하고 재평가함으로써 성경의 원리와 방법론에 맞게 재구성되는 것을 일반은총적 유용성으로 간주한다(Scriptural Foundation & Secular Nuggets).

중독을 보는 행동주의 가족치료 Model은 가족질병을 특성화하는 역기능적 가족행동에 초점을 두어서 가족과 가족체계 강화 요인에 의해 유지되어 지는 것을 중독 행동이라고 본다. Black Box 이론인 가족체계 Model(first order cybernetics)에서는 중독의 본질보다는 그 중독을 둘러싼 가족의 맥락과 가족관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가족전체와 상호작용 패턴의 결과와 개인심리를 결부시켰다. 가족체계이론의 주요개념인 가족경계, 삼각관계, 가족구조, cybernetic box의 feedback 연결고리, 가족의 평형성과 항상성, 가족규칙, 가족의식, 전체성, 가족신화, 가족비밀, 위계질서 등은 영향을 미치며 “중독자”라고 불리는 IP(Identified Patient)는 가족의 하위체계 및 가족전체와 영향을 주고받는다. 1999년 미국의 가족상담에 새로운 개혁을 일으킨 2차 가족치료

(Second Order Cybernetics) 접근은 “가족의 Feedback 고리에서 투입과 산출의 자동적인 움직임으로 인해서 가족들의 문화의 다양성을 고려할 수 없다”는 AAMFT의 체계모델의 지적을 반영하면서 가족치료사 권위를 끌어내리고 상담윤리 Issue를 강화하는 제 2차 가족치료가 미국 가족상담의 큰 개혁을 일으켰다. “가족 체계가 문제를 형성 한다”는 가족체계론적 견해에서 “문제가 가족체계를 형성하게 한다”는 견해로 바꾸면서 가족의 지배적인 이야기, 해체적인 이야기에서 중독을 이해하며 대안적인 이야기, 개인과 가족의 정체성을 재구조화시키는 작업을 한다.

S. Freud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애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대상애는 서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보는 반면 E. Fromm은 먼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랑을 받아야 한다.¹³⁾ 여기에 대해 Edgington 교수¹⁴⁾는 사랑을 받는 주제에 대해 성서를 인용하였다. ‘자신을 먼저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존엄하다고 하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기 때문에 가치로 와지며 (갈 4:6-7; 마 6:26; 고전 6:19-20; 롬 8:15-16) 사랑받는 존재로 군림할 수 있다”고 하였다. 관계 안에서 형성되어지는 자존감과 자기 개념은 성경적 존엄감(Biblical Dignity)로서 설명이 가능하며(창 1:26; 마 6:26; 마 10:30-31; 롬 15:17; 고후 10:18; 고후 6:4-10),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며 사랑할 수 있게 된다. 가족상담에서 중요한 것은 ‘관계’의 개념이며 관계성 질문은 가족상담에서 중요하다. 2004년 한국을 다녀간 이야기 가족치료 창시자 M. White박사와 A. Morgan은 개인의 정체성은 가족의 맥락과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 진다고 하였고¹⁵⁾ 21C의 최근의 이론들¹⁶⁾은 Erickson의 발달이론이 너무 개인적이며 가족 발달주기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AAPC의 중심인물이었던 해결중심 목회상담 Kollar 박사¹⁷⁾

는 가족의 정체성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현재 형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며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정체성과 인격 발달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고 하였다. 가족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되고 관계 지향적 능력과 존재 지향적 능력에서 출발하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한 가족관계를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면서 개인의 정체성을 견고히 한다.

한국에서 청소년 10명중 한명의 비율로 발생하는 인터넷 중독 뿐 아니라 모든 과정, 행동중독은 peer group 영향과 호기심, 가족의 경계, 사회문화적 요인, 동료압력과 집단 영향, 학교생활, 우울증 및 성격장애 등의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현상들은 일차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외부 환경 요인과 또래 집단들(peer groups)의 문제, 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가족구조 만으로 원인을 돌릴 수 없다.¹⁸⁾ 그러나 가족상담에서 중독에 연루된 다세대적 관점은 세대를 거쳐 내려오면서 얽힌 가족 에너지에 의해 여러 가지로 영향을 주고 받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해준다. 청소년들이 담배나 약물을 복용하는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족을 자신의 문제에 집중하게 하고 그렇게나마 가족이 하나로 뭉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가족이 하나가 될 때까지 자녀들의 중독 행동은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분화(differentiation)는 개인의 특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특징을 말하기도 한다. 어떤 의미에서 분화는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가족 스트레스와 위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은 분화에서 오며 가족자원이 된다. 가족의 낮은 분화수준이 한 가족 구성원의 미분화와 그것에 따른 불안을 일으키면 다른 것으로 삼각관계를 유발케 할 수도 있다. Philip Guerin(2005)는 가족관계 안에서 논의되어왔던 개인의 감정반사와 가족관계의 삼각화(triangulation)를 설명하였다. 가족간의 상충된 욕구가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불안 감소를 위해 다른 것(i.e. 물질, SEX,

외도, 인터넷 등)을 관련시켜 관계의 안정감을 유지하려 한다. 가족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 되지 못할 때도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가족안의 삼각관계에 연루된 자녀는 부모에게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간에 자아분화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으며 사물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며 반사감정에 익숙해질 수 있다. 청소년은 여러 가지 도구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고 물질/행동중독 등의 나름대로의 생존의 수단을 갖게 된다.¹⁹⁾ 미분화 가족관계는 또한 가족 내의 삼각관계에서 벌어지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투사를 조심스럽게 다루면서 수면에 나타난 중독행동보다는 생존방식의 유형과 상실에 관여하는 청소년 기대와 믿음을 이해하여야 하는 것과 청소년이 속한 가족을 기독교 안에서 재구조화시키는 것으로 영향을 주도록 도울 수 있다. 성경의 38년된 병자와 같이 중독자와 그의 가족들은 통제할 수 없는 삶에 대해 회복되기를 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부분적으로는 자신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었던 다른 것에 대한 것 사이에서 이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양가감정(ambivalent feeling)과 이중적인 삶을 지탱한다. 예수님의 질문(i.e. 넋기를 원하는가?)은 생활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려는 것에 대해 받은 인정을 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못한 삶을 반영해 준다.

4. 가족상담 안에서 동반의존 개입

중독자와 가족들은 특별히 일생을 통해 Self-help Groups(i.e. ACOA, ALATEEN AL-ANON, AA)이나 회복과 지원 집단을 통한 회복을 격려받기도 한다.²⁰⁾ ‘동반의존’에 대한 과거의 전통적인 견해들은 무의식적 욕구가 해소 되면 심리적인 안정으로 중독적인 의존이 다시 조성되어지는데 그것은 배우자의 모성애적이며 지배적인 무의식적인 욕구가 가족의 단주를 방해하게 만든다

는 것이다. 중독자가 중독의 질제력을 회복하는 단계에 도달했을 때 동반의존자는 불안을 위협적으로 느끼면서 배우자가 자신을 떠나지 않을까 하여 불안해 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지난세대의 이론들과 달리 모든 중독자의 배우자와 자녀는 모두 공동의존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배우자의 만성적인 stress 반응에 의해 기능적 순환적 가족체계를 유지하는데 가족체계의 속박은 특유한 alcoholic가족의 경직성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²¹⁾ 그러나 Berg & Miller에 의하면 ‘동반의존’의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문제 해결을 위한 결집은 배우자나 가족 구성원이 평소에 하던 것과 다른 무엇인가를 해내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도와주어야 한다.²²⁾ Insoo Berg는 “자신의 문제는 무엇”이고 “자신(혹은 중독자)이 변화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며 “중독자에게 관여할 수 있는 자원” 등을 가려내는 작업을 할 수 있는 것²³⁾ 동반의존과는 다르다고 언급한다. ‘동반의존’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가족을 중독의 ‘촉진자’로 보기 보다는 그들의 강점을 끌어내어 한 가족구성원이 변화되고 있는 것을 가족이 알게 되면 긍정적인 방법으로 반응하게 하며 이러한 작은 변화는 강화되고 가족의 파생과 파급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Gerald Corey(2005), Berg와 Miller(1992)는 전통적 견해는 ‘방문형의 내담자’를 ‘불평형’으로 잘못 인식하여 가족사정을 한다든가 내담자가 할 수 없는 상담의 목표를 정하고 할수 없는 내담자를 동반의존, 성격장애 등으로 규정짓는 문제들은 상담가의 윤리 문제로 간주했다. 비록 단주 program이 훌륭한 자원이 될지라도 단주만을 강행하는 것은 문제가 된다. 내담자가 할 수 있는 해결방식에 비해 너무 큰 변화를 집단이 요구할 때는 작은 목표 안에서 지적 도약을 위해 중간수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은 중독 상담에서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가족상담자는 가족 상담과정을 통해서 동반의존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가족의 정체성을 가지는 그 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촉구하게 된다. 상담자는 자신의 상담이 반영되

어 무엇이 문제이고 상담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보아야 한다. 최근 2차 가족치료 중 하나인 반영팀(Reflection team)은 자신의 상담 장면을 지켜보던 다른 팀을 통해 자신의 상담을 견제시키며 관여하게 함으로서 상담자가 자신의 상담의 오류를 깨닫고 자기탐색을 견고하게 한다.

5. 연구 과정

1) 연구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가족치료와 상담 연구소’에서 2005년 겨울에 5개월 이상 자조집단에 나가거나 병원외래와 관련이 있는 단주중인 알코홀 가족의 부부들 32쌍을 대상으로 결혼 만족도와 가족의 역동과 부부관계를 조사해 보았다. 또한 병원이나 요양원등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알코홀 부부 34쌍을 대상으로 하여 똑같은 주제를 갖고 비교 연구하였다. 본 연구자는 10명의 내담자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Domain을 설정했고 Domain을 중심으로 하여 객관도,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한 설문지를 작성하여 내담자와 그 가족들에게 배포하였다. 알코홀 문제에 노출되어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부보다 회복 couple들은 ‘중독행위가 없어 만족하며 가족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나 89%의 부부에게서 음주기간 중 잘 나타나지 않았던 부부갈등, 성격부조화, 부부간 정서적 갈등, 동반의존 등 많은 문제들을 겪는다고 응답하였다. 다시 발견되어진 것은 중독 자체가 동반의존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갈등의 문제로 인해 동반의존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입증할 수 있었다. 연구의 관심과 목적은 ‘가족상담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와 ‘가족상담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했는가’에 대해 영역 분석과 분류분석으로 면집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다.

2) 연구 방법

상담과정에서 발생하는 경험, 부부의 경험, 또는 부모자녀 하위체계에서 겪게 되는 경험 등을 가족상담을 통해서 재구조화 시키는 과정들과 ‘가족상담이 어떻게 경험했는가’는 기본적인 과정연구의 변인이면서 장기적으로 치료 메카니즘을 이해하게 해준다. 가족 상담을 받아왔던 중독자와 그들의 가족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 공유 집단으로 볼 수 있고 문화와 상이한 특성을 가진 문화를 공유하였다. 여기에 사용한 Ethnography의 연구방법은 민족이라는 공통적 의미보다는 특정 문화를 공유한 집단이라는 의미에서 사용하게 되었다²⁴⁾.

(1) Ethnography

질적 자료 또는 기술적 자료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내용분석을 하며 이것은 원자료의 내용을 통계분석적인 방법처럼 축약하지 않고 원래의 내담자의 주관적인 관점을 표현할 수 있다. 문화 기술지는 양적연구의 결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는데 그 특성은 인터뷰나 질문지를 통하여 상호작용이나 담화에 관한 정보를 만들어 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대화를 통하여 대화가 전개되는 상황에서 일상적인 상호작용이 산출하는 방식들을 끌어내는 면접방법이다. 연구 참여자 경험을 설명하고자 하는 문화적 의미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문화 선택의 과정으로 알고자 하는 일반적인 문제로 시작한다. 문화기술지에 입각하여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구체적 연구 기법들로써 참여관찰이나 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사용하는데 면담은 비구조적 면담으로서 연구자와 가족의 상호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상황적 대화내용을 중요시하는 효과성을 설명하기

에 부족한 실증주의적 양적연구를 보충하기 위해서 생긴 면접법은 질적

연구(qualitative study)로서 이야기되거나 글로 표현된 언어와 행위등을 기반으로 한 기술적 자료를 생산 해왔던 연구이다.²⁵⁾ 문화기술지의 각 과정들이 연결되어 있으며 다른 과정으로 갈 때 끊임없는 feedback을 요구하는데 가설형성 과정으로 필요한 경우 연구의 뒤 단계로 가서 자료를 더 수집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똑같은 단계를 반복하면서 과정을 완성해 나갔다.

논문 지면관계로 문화기술지(Ethnography) 면담과정을 <표 1>에서 영어로 요약하였다.

(2) 과정연구와 성과연구

상담성과과정 연구란 상담의 성과를 발생시키는 상담의 과정부분이 무엇인지를 밝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 상담과정 연구의 근본적 기능은 상담성과 연구(what counseling does)는 상담이 무엇을 하는 지 알아내는 것이고 상담과정 연구는 상담이 무엇인지 알아내고자(what counseling is) 하는 것이다.²⁶⁾ 최근에 와서 상담가들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효과성을 획득해야 하는 이유 때문에 문제시되었고 가족상담에 있어 과정연구의 중요성이 일어나게 되었다. 상담 과정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내담자의 변화과정과 내담자의 변화 메커니즘을 구체화시키는 것이다. 체계간의 상호작용에서 상담의 효과성보다 치료의 변화 과정을 알고자 하는 것은 가족상담에서 적절한 연구주제를 모색하게 한다.

<표 1> 문화기술지 면담 과정

Mini Ethnography Content

Ask questions such as "what happens
in Christian family counseling?"
What happens when therapy is o.k (good)?

What happens when clients don't improve?
Ask these questions to everyone (families, pastors,
therapists, other pastoral counselors)

Interview everyone individually

Interview everyone in group

Open code the responses

Write Theoretical Memos

Mini Ethnography Content

Ask Refined questions to everyone

Be sure to ask the same questions to everyone over & over

Keep asking refined questions until there is no
more new information (repeatedly)

Write Report that gives answers to

What is good therapy with God from family
perspectives?

What is good therapy with God from counselor
perspectives?

What is good therapy with God from family
perspective?

(by Dr.Thomas E. Smith,2005)

이 연구는 상담과정의 일어나는 신앙과 기독교 안에서 변화과정을 밝히는 것으로서 가족이 경험하는 변화과정에 관련된 모든 경험과 행동을 치료 session 동안과 치료 session 후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3) 자료수집방법과 분석방법

가족치료 상담연구소 부설인 중독 상담연구소에서 2006년 1월부터 2006년 9월 동안 가족 상담을 받아왔던 내담자와 그의 배우자들 중 본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9쌍의 내담자 부부, 이 중에는 청소년들과 한 부모 가족들이 포함되었는데 본인들의 상담경험에 대하여 면접을 하였다. 12쌍의 부부들 및 중독자 자녀와 한부모들 중 연구자가 본 연구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중독자와 그 가족들 중 9쌍 선정하였다. 연구주제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참여자들을 선택하였고 가족들의 경험을 진솔하게 하는 것으로 연구설계²⁾의 목표를 설정했다. 부부상담 및 가족 상담을 받아왔던 내담자들은 연령별로 30대 부부 두 쌍, 40대 부부 세 쌍, 50대 두 쌍, 회복기에 있는 두 명의 청소년들과 한 부모 가족들이 포함되었다. 과거에는 성중독, 알코홀과 헤로인 중독, 인터넷과 미약중독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으나 현재 내담자들은 금주상태이거나 더 이상 중독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외래치료, Self Help Group 등에 참석하면서 본연구소에서 4-5개월 이하 혹은 3개월 이상으로 상담을 받아왔다. 이 연구참여자들은 부부갈등이 심하여 이혼을 거론할 정도의 위기개입 상황에 있던 부부와 사소하게 청소년과 싸우는 한부모 가족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가족갈등이 있어 왔다. 연구의 참여자들인 가족들에게 면담 직전에 통합적인 가족 상담(problem- focused/solution -focused)을 한 번 더 하고 Session 직후 면접이 곧바로 30-40분 동안 이루어 졌다. 일부 가족과 내담자의 경우는 시간의 어려움이 있어 짧게 2회의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접은 사전 훈련에

의해서 연구소 연구생 한명과 본 연구소 강사 한 명, 모두 2명에 의해 면접이 진행되었다. 면접방법과 내용에 대한 본 연구자의 지시에 따라 순서대로 면접을 시도함으로써 가족상담자가 아닌 다른 두 면접자와 가족들 간의 대화가 진행되었다. 면접과정은 가족들과 내담자의 동의하에 같은 면접자 한명에 의해 녹음 되었다.

자료분석은 먼저 1:1 면접을 통한 서술적인 질문과 관찰을 통해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자료가 수집된 이후에 곧바로 분석이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가족상담자의 연구방법론 교수였던 Florida 주립대 Dr. Edward Smith²⁸⁾와 방법과 같은 방법을 선택함으로써 영역분석과 분류 분석을 하나의 과정으로 결합시켜 실시하였다. 영역분석은 연구 참여자의 용어로 코딩하고 수행되었는데 영역분석 이후 구조적인 질문을 통해 영역(domain)을 정의하였고, 영역 안의 하위 집합사이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영역을 명료화하기 위해 분류된 의미론적 관계목록(i.e 행동의 장소, 공간, 원인-결과, 근본이유, 수단, 기능, 결과, 순서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영역을 분석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내담자 혹은 가족에게서 얻은 용어들에서 의미론적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영역을 명료화 시키고 필요한 경우 자료를 더 수집하고 다음에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다. 동시에 분류 분석으로서 녹음이 되어진 면접 내용에 대해서 반복 검토함으로써 녹음을 담당할 연구생과 연구소 강사, 본 연구자, 대학생 한명이 더 참가하여 가족들의 상담경험을 분류하였다.

3) 연구 결과

본 연구의 분류분석 결과로서 ‘Session 동안’에서는 8가지 범주로 ① 치료적 동맹, ② 상호작용 촉진(i.e. 질문을 열어줌), ③ 가족의 응집력, ④ 새로운 관점 발견(i.e. 서로의 과민반응을 이해함), ⑤ 하나님의 공평함과 공감, ⑥

동기부여, ⑦ 문제보다 강점 발견하기, ⑧ 개별적으로 분리된 상담요구 등의 영역이 도움이 된 주제로 언급 했고, Session 밖에서는 ① 과제의 유용성, ② 상담의 삶에 적용, ③ 계속성, ④ 예외상황 찾기 ⑤ 용서 등이 도움이 된 주제로 그들의 상담에 대해 표현하였다.

<표 2>에서 가족 상담과정연구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I. Session 동안

사례 축약 (1): 상호작용

회원 재구성 대화와 가상질문과 관계성 질문, retelling, re-authoring

M: (1: 02) 내가 우울해서 해주는 것 없이 아이를 방치해서 저렇게 인터넷 채팅이나 하고 솔직히 죄의식이 들어요.

C: (1: 04) ?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시겠어요?

C: (1: 03) 어머니가 살아오시면서 과거에 가장 가치롭다고 느끼고 존중해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가요? (remembering)

IP: (1: 06)

C: (1: 02) ?

IP: (2: 09) ? 사람이 아니잖아요

C: (2: 03) ? (수님의

시각으로 자신을 보게함)

M: (2: 11)

C: (2: 07) ?

M: (2: 02) .

그런 사명을 주셨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니까... 뭐.....

C: (2: 04) . |수님 보시기에 그 노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

명호에게 물졌는데 어머니가 너를 잘 키우는 것에 대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노력하는 것에 대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Retelling)

IP (3: 02) . .. 수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희미하게 알긴 알지만..

나는 날라리 신자예요. 그냥...

C: (2: 06) ... ?

IP: (3: 04) (|답자가 전에 하지 않던 이야기에 대해
놓치지 않고 물었다)

C: (3: 05) ? ()

Ip: (3: 04) . 엄마

가 예수님을 이야기 할 때 마다 그냥 좋게 생각이 되었어요. 기도를 할
꺼예요 ()

C: (4: 06) ?

IP: (4: 01) , . 엄마가 힘드니까 내가 할 일을 하는
거라구요. 수도 모르는 것 아닌데

C: (5: 05) ? . 무엇이 너로 하여금 그런 생각을 갖도록
했나?

IP: (5: 03) (바꿈) . (Re-authoring)

C: ?

IP:

C: . 어머니가 무어라고 이야기 하시기를 기대하니?

M: . ()에서 아들을 어리석다고 이야기 하던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는 점 Re-authoring 가족의 이야기를 다시 씀) ----

C: (6: 04) ?

IP: (6: 07) ... () 교회는 잘 안 나가지만 노력한다고 하실 것 같아요.

C: (6: 05) ? 그러면 어머니는 네가 노력하는 것에 대해 처음에 무엇부터 시도해야 한다고 이야기 하실까?

사례 축약 (2)

외부증인되기: , / , , 인정의식

C: (1: 03)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현이가 엄마가 뭐라고 소리를 치셨는데도 불구하고 분노하지 않고 내지 않고 창가에 나가서 무엇인가를 생각했다고 하시던데... ? 그렇다면 현이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된 것에 대해 이름을 한번 붙여볼래?

IP: (1: 05) () ‘ ’ . 창가에서 할일을 갑자기

생각했더니 그냥 화를 내기보다 그냥 분노가 가라앉았어요. 그렇게 한 것 뿐이에요.

C: (2: 06) _____ ?

A: (2: 05) 집에서는 항상 저 아이는…… 소리를 지르고 나는 잔소리를 그치지 않았는데 지금은… 자기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_____ .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계속 그랬으면 했는데….

C: (3: 01) _____ .. 현아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을 듣고 너의 마음에 와 닿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 해줄 수 있겠나?

IP: (3: 05)

C: (4: 12)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가운데서 엄마가 너의 증인이 되실 수 있겠네. _____ ? 이런 현이의 말을 들으면서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M: (4: 02) _____ ? 이때까지 너무 심하게 잔소리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C: (4: 04) _____ , 어머니의 말씀 중에서 현이가 가장 마음에 와 닿아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뭐라고 하겠나?

IP: (4: 03) _____ . (_____) _____ . 아이들과 술먹고 마약하고 학교 안 갔던 것은 사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에요. 궤 진실은 아니라고요.

C : (4: 07) _____ ?

사례 축약 (3)

동기-척도 질문, Unique Outcome

C 1: ()은 선생님이 금연하는 것에 대해 어느 정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할 까요?

IP 1: .
관심이 많거든요 ()

C 2: 0 |으로
놓고 선생님이 고민하는 문제가 모두 해결 되었을 때를 10
지금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이라고 생각하시나요?

IP 2: 5 ? .

C1 : 5 1 (, ,
하나님은) ?

IP1 : . 교회 성경공부 저녁반
에 등록 하려고 합니다. 술과 히로뽕은 안하지만 짜증스러울 때가 많아져서
요 stress . 화날 때도 많고... 일을 줄여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 , 일하든 한 단계씩 하고 조금씩 늘려
나갈 겁니다.

C: 무엇이 선생님께서 하여금 그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도록 또한 일을 계획
있게 줄여나가도록 하나요? (Unique outcome)

<표 2> 가족 상담과정 연구 요약

영역	내용	Domain
Session 동안	막혔던 부부관계, 모자관계가 열릴 수 있음 중독문제를 포함해 가족대화의 진행 방향을 잡아줌, 긴장감소, 서로의 외부 증인되기	상호작용 촉진
	가족의 정체성 부부 힘겨루기 단계에서 하나님을 기대한다	가족의 응집력
	부부의 상호 과민반응과 중독을 이해함 열망과 목표를 구별할 수 있다	새로운 관점
	상담자와 기독교라는 이데올로기가 같다 같은 기대안에서 서로 통합	치료적 동맹
	공평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상담의 편견이 없어 안정됨	하나님의 공평성
	중독문제의 대응책 진행방향 촉진 중독을 대처하는 방향에 대해 가족이 구체적으로 행동하게 됨	동기 부여
	상대방의 문제보다 강점에 중독문제보다 강점을 끌어내려는 노력 초점이 맞추어 진다	강점 발견하기
	필요에 의해 부담감을 가질 때 분리상담 받는 것을 요구	격리상담 요구
Session 후	행동계약의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상담의 연장 반성문, 편지쓰기와 자기관찰 상담 이후 실제 삶에 적용됨	과제의 유용성 상담을 삶에 적용
	독특한 결과를 찾는 작업으로 계속 시도	반복성 계속성
	하나님은 신뢰 대상이지만 인간은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임	용서
	알코홀을 많이 먹었을 때와 적게 먹었을 때 무엇이 다른지 찾기 언제 분노를 냈는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언제 분노를 내지 않은가에 초점 두기	예외상황 (독특한 결과)

사례 축약 (4)

가족응집력: 표출대화, 외재화(externalization) 가상성 질문과 관계성 질문

W: (1: 03) . 그런데 않 먹으면 안 되는 장소에서 술을 먹고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지 않았어요. 이제 내가 집을 비우든지 해야지 원... 직장생활도 망치고요 정말 힘들어요.

IP: (1: 02) () . 그것 때문에 사표를 내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오랫동안 먹지 않았다가 상사와 같이 있는 장소에서 먹어 본 것뿐이에요. 카누라가 그것 때문에 소리 지르는 것이 듣기 힘들어서...

C: (1: 05) ?
()

IP: (1: 04) . 어제 술을 했더니 그런 것 같고... 술도 안 먹고 부부싸움도 안 했으면 합니다.

C: (1: 07) ?
술에 대해 선생님께서 이름을 붙여 보시겠어요? (externalization)

IP: (1: 03) 방해꾼

C: (2: 04) ? ? 술이 선생님한테 방해가 된다는 의미인가요?

IP: (2: 03) .

C: ?

W: .

C: (2: 01) 부인은 그 ‘해꾼’ | 남편을 침입하고 지배하지 않도록 어떻게

도와주시겠어요? ()

W: (2: 03) 그놈을 묶어서 그냥...

C: (2: 10) : ? ?

W: (2: 13)() 박스에 넣어서 선반에 두고 지켜보고...

H: 2 () .

C : (3: 04) ‘해꾼’이라는 술이 박스에서 나오려고 꿈틀거리면 두분이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IP: (3: 02) . . 광을 잘 보라고 마느라에게
지시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겁니다.

C : (3: 05) ?

W: (3: 07) .

C: (4: 04)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면 부인의 이런 모습을 보시고 뭐라고 이야기
하실까요? (/)

II. Session 후

과제 유용성: Message 전달 후 연결문과 함께 내담자가 원하는 대로 과제를 주었고(성경과 반성문, 편지 쓰기, 강점 찾기) 행동계약서를 작성한 후 다음 session에서 주고받은 편지를 열거하는 것이 유용하였음

III. 달는 글

21C 중독은 모든 인간에게 숨겨져 있는 중독으로 내재하고 있다는 이유

외에도 중독 회복은 기독교 상담이 안고 가야 할 과제이며, 한국대학이나 대학원 교육에 있어 중독상담에 대한 교과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지고 있다. 중독 회복에 필수적인 가족 상담과정의 Professional Issues를 다루면서 가족상담의 변화 과정을 Ethnography 연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 하였으며 기독교 안에서 나가서 가족의 치료적 매카니즘을 알기위해 작업을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설계는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으나 문화기술지의 적합한 연구를 했다고 본다. 그러나 더나가서 과제 분석이나 순열 분석 등을 통한 상세한 연구가 후속연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램이다. 가족상담자는 자기 점검을 필요로 하며 상담 과정을 검토하는 작업은 필수적이 된다.

참고문헌

조용환, 「질적 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1999.

Hart Archibald.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정성준 역, 「참을 수 없는 중독」 서울: 두란노, 2005.

Hart. *Adrenalin & Stress*, 김창영 역, *Stress & Adrenalin* 서울: 요단출판사, 1997

Dale Ryan. *Addiction and Recovery*, 정동섭 역, 「중독과 회복」, 서울: 예찬사, 2005

Dejung & Insoo Kim Berg. *Interviewing for Solutions*, 허남순 역, 「해결을 위한 면접」, 서울: 학문사, 2002.

- Ellis Morgan. *What is Narrative Family Therapy?*, 「이야기 치료란 무엇인가」
서울: 청목출판사, 2003
- Insoo Kim Berg & Scott D. Miller, *Working with the Problem Drinker: Solution focused.*
Family Therapy. 가족치료연구회 역. 「해결중심단기가족치료」, 서울: 하나의 학사, 2002.
- Bradshaw. J. *Healing the Shame that Binds You*. 김영찬 역, 「수치심의 치유」,
서울: 기독교상담연구원, 2002
- Mark Laaser. *Faithful and True*, 정성준 역. 「아무도 묻지 않는 죄」 서울: 예수전도단, 2005.
- P. Guerin, T. Fogarty., J. Kautto. *Working w/ Relationship Triangles*, 「가족치료임상에서 삼각관계활용」,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2
- Roger Hurding, *The Bible and Counseling*, 문희경 역, 「성경과 상담」 서울: UCN, 1992.
- A. Straus & J. Corbin.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Sage, 1998
- Alan Booth.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Minneapolis: NCFR, 1997
- Alan E Bryman, *Quantity and Quality in Social Research*, New York: Routledge. 2000.
- Anderson, H & Coolishian, H. *Client is the Expert*. New York: Brunner/Mazel, 1999.
- Alan Booth. *Contemporary Families: Looking Forward*. Minneapolis: NCFR, 1997
- Boss. P. *Family Stress Management Series* (8). Newbury Park: Sage, 1990.
- C A. Kollar. *Solution Focused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9. David & Elsie Mackenzie *Still Married, Still Sober*, Downers

- Grove: IVP. 1991
- H. I. McCubbin, Charles Figley. *Stress and The Family*. New York: Brunner Mazel. 1990.
- Irene Goldenberg & Herbets Goldenberg. *Family Therapy*. Pacific Grove, CA: Books/ Cole, 2000.
- Joyce Meyer. *Approval Addiction*. Boston: Warner faith, 2005.
- J. Carlson & D. Kjos. *Theory & Strategy of Family Therapy*, Boston: Allyn & Bacon,
- John Bradshaw. *Creating Love*. New York: Bantam, 1992.
- Ryder, R. G. "The Holy Grail: Proven efficacy in Family Therapy". In Wynne, I.C. *The State of the Art in Family Therapy Research: Controversies and Recommendations*. New York: Family Process. 1988: 47- 54.
- Samuel T. Gladding. *Family Therapy*, Columbus, Ohio: Merrill Prentice Hall, 2001.
- Sells, S. P., Smith, T. E, Coe, M. J., Yoshioka, M & Robbins, J. "An Ethnography of Reflection Team": Therapist' Perspectives. *Contemporary Family Therapy*. 14, (1994, Oct): 419-432
- Thomas C. Todd & Matthew D. Seleckman. *Family Therapy Approaches with Adolescent Substance Abuser*, Lexington, MA: Lexington Books. 1991.
- Insoo Kim Berg, *Family Based Service*. New York: Norton & Company, 1994.
- Michel White. *Reflections on Narrative Practice*, Adelaide: Dulwich Centre, 2000.
- Michel White & D. Epon, *Narrative means to Therapeutic Ends*. NY: Norton, 1995.

후주

1) sponsor는 중독경험과 회복의 성공적인 재활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회에 복귀하려는 환자들에게 역할모델이 될 수 있는 전문가 혹은 회복된 사람이다. 회복기에 있는 중독자들이 약물 의존이나 혹은 다른 중독 유혹을 받고 생활상의 문제가 있을 때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후원자와 관계를 갖도록 권유받는다.

2) Sandra Wilson. *Hurt People Hurt People* (Grand Rapids: DHP, 2001), 145

3) T. Edgington. *Healing Helps from the Bible* (Winona Lake: Edgington,1995), 138

4) Sandra Wilson. *Released from Shame*. 온누리 회복 workshop (2005, 1), 14.

5) Mark. Laaser. *Faithful and True* (Grand Rapids: Zondervan,1992), 63-65, Mark R. Laaser, 온누리 회복 workshop (2005, 1), 10. Dr. Laaser는 외상을 외상방해(trauma blocking), 외상 분열(trauma splitting), 수치심(sense or shame), 외상반응(trauma reaction), 외상 재감(극도의 위협과 수치로부터 쾌감을 찾는 것), 외상 금욕(i.e. 거식증), 외상반복(trauma repetition), 외상 결속(trauma bonding)으로 분류하였다.

6) 이현경 “A Comparison between ARA and KRA Recovering Alcoholics’ Adjustmentsw/ Family Systems: Causal Model”(Ph.D Dissert. Florida State Univ.1999): 138

7) Larry Crabb “Cup Analogy”, In Tom Edgington. 기독교상담: 정체성 & 탁월성에서 재인용 연세정신과 길르앗 workshop. (2005, 1), 45.

8) Peter Sanders. *Access your Brain's Joy center* (NY: Simon & Schuster, 1996), 24

9) 이현경. 디지털시대 가족상담패러다임 변화 & 대응책, 기독교교육정보학회 「기독교교육정보」 9권(2004, 10), 50

10) 백영성, 핵심감정의 이해: 정신치료 이론과 실제: 한국 정신의료학회, 제2차 학술 연찬회 정신치료 Workshop (2005, 5), 39-44.

11) Monica McGodick & Froma Walsh. Resilience in Bowenian Family Therapy: Understanding and Healing Troubled Family Relationship. 한국가족치료학회 제27회 워크샵 (2005, 5), 1-39.

12) Marianne & Gerald Corey. *Becoming a Helper*, 이은경 역, 「좋은 상담자 되기」, (서울:시그마프레스 2004), 245-255. G Corey, et al. *Issues Ethics in Helping Professions* (Pacific Grove, CA: Brooks/Cole Thomson cole, 2002)

13) 양유성. 사랑하는 관계속에서 나르시즘, 한국 목회상담학회, 「목회와 상담」 6호 (2005, 봄), 80.

14) Tom J. Edgington. *Healing Helps from the Bible* (Winona Lake: Edgington,2004),31

15) Michal White. *Narrative Practice & Exotic Lives* (South Au: Dulwich, 2004), 47.

- 16) White 2000, de Shazer, 1994; Morgan, 2003; Berg & Anderson, 1993. 참고문헌
- 17) Charles Kollar. *Solution-Focused Pastoral Counseling* (Grand Rapids: Zondervan, 1999), 57-58. 일반 정신 건강과 기독교 정신건강의 차이점을 언급.
- 18) 이현경. 기독교정보교육학회 「기독교정보교육정보」 9권, (2004, 10), 28
- 19) P. Steinglass, L. Bennett & D. Reiss. *The Alcoholic Family* (NY: Basic Book, 1993), 125.
- 20) G. Lawson, J. Peterson., A. Lawson. *Alcoholism & Family* (NY: Aspen, 1998), 137.
- 21) R. L. Collis., K. E. Leonard & J. S. Searles. *Alcohol and Family* (NY: Guilford 1990). 198.
- 22) IBerg & S. Miller, *Working w/ Problem Drinker*, 가족치료연구모임 역, 「해결중심가족 치료」(서울: 하나의학사, 1992), 103.
- 23) Ibid. 103-104
- 24) Smith, T., Yshioka, M & Winton, M. "A Qualitative Understanding of Reflective Teams: Clients' perspectives", *Journal of Systemic Therapy*, 12(3)(1992, Oct), 113.
- 25) Ibid, 115
- 26) 김계현. 「상담심리학 연구: 주제론과 방법론」(서울: 학지사, 2004), 331
- 27) 연구설계는 연구결과를 일반화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연구자가 연구주체와 관련된 내담자들을 선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자료수집방법은 기회표본 사용함.
- 28) Smith T. E. Sells, Sells, S. P., & Clevenger, T. *Ethnographic Content Analysis of Couple and Therapist Perceptions in a Reflecting Team Setting*. 가족치료에서의 질적 조사방법론. 한국가족치료학회 25화 워크샵 (2005, 6), 101-118

Abstract

Family Counseling Process Research for the Recovering Addicts and Their Families: Focused on an Ethnographic Study

Hyun Kyung Lee

(Ph. D., Baekseok University)

This Article discusses the need for process research in family counseling for the recovering addicts and their families. In the qualitative study for the supplement of quantitative study, it describes the results of an ethnographic exploration of clients' experiences of the integrated family counseling. Post-session ethnographic interviews with addicts and their families were analyzed, allowing the construction of a taxonomy of clients' perceptions of how family counseling was helpful in Christianity. "The helpful results included "therapeutic alliance", "encouraged family interaction", "family cohesion""new perspectives in Christianity", "fairness of God" "invest motivations", "finding family strengths" "Individual session"(during family counseling session) "weigh with lives", "keep trying out", "finding exceptional situation" and forgiveness"(post family counseling session).

KEY WORDS: recovering addicts and their families, integrated family counseling, qualitative study, Ethnography, Christianity, family experience, family counseling process research.